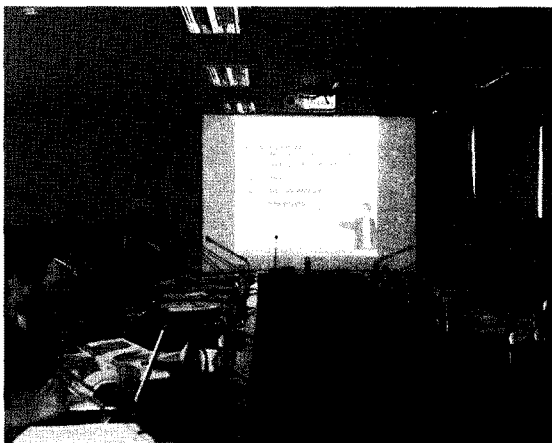


2010 아시아 양봉대회 개최 준비 본격 돌입



2010 아시아 양봉대회 운영위원회



행사대행사 이오컨빅스에서 행사 진행에 대해 프리젠테이션을 하고 있다.

아시아양봉대회 운영위원회

3월 20일 열려

대회 예산 14억원,

6월부터 홈페이지 운영

2010년 아시아양봉대회 개최를 위한 본격적인 준비가 시작됐다.

2010 아시아양봉대회 운영위원회는 지난 3월 20일 제2축산회관 6층 회의실에서 제5차 운영위원회 의를 열고 구체적인 대회 운영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대회 예산은 총 14억원으로 국비 60%, 자부담 40%로 진행될 예정이다.

운영위는 학술행사는 양봉학회가, 행사준비는 양봉협회가 맡는 쪽으로 운영지침을 정하고, 등록비와 부스임대료, 테크니컬 투어 등 세부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대회 홈페이지는 행사대행사 이오컨빅스에 홈페이지 계약을 위임, 6월부터 본격 운영할 방침이다.

오는 9월에 열리는 프랑스 세계아시아양봉대회에서는 참가국들을 대상으로 2010년 아시아양봉대회의 한국 개최를 알리기 위해 학회(6명 예정), 협회(20명 예정), 조합(인원미정)으로 구성된 홍보팀을 보내 행사홍보를 진행키로 했다.

또한 운영위는 AAA(아시아양봉연구협회) 회장의 초청시기를 올 10월 제주에서 열리는 양봉학회 일정에 맞춰 준비하는 등 효율적으로 운영키로 했다. 최광렬 운영위원회장은 “함께 힘을 모아 양봉대회를 유치한 만큼, 이번 대회를 계기로 한국양봉을 세계에 알리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다시 한번 힘을 합쳐 아시아양봉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자”고 밝혔다.

배경수 양봉협회장 역시 “협회가 실시하고 있는 양봉자조금과 아시아 양봉대회 개최로 현재의 어려운 양봉업계를 해쳐나가자”고 역설했다. **양봉**